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6. 30

주간 달러/원 동향(6/23~6/27)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이란에 대한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로 명명된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결 소식 등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위험 극대화 속에 환율은 지난 5.21일 이후 최고치인 1,384원대까지 상승 출발. 이어 중동 사태가 불과 이틀 만에 극적 이란-이스라엘의 휴전에 이르며 환율은 전일 상승분 이상을 되돌림하며 큰 폭 하락. 여기에는 연준 매파 성향의 보편 부의장의 7월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도 크게 영향. 중반, 전일 중동리스크 해소에 따른 급격한 위험 선호 국면이 일부 되돌림되어지며 소폭 상승. 여기에는 한국이 MSC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소식 등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에 영향 미친 측면도 반영된 형국. 후반 들어, 연준의장에 대한 트럼프의 후임자 관련 보도 등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환율 하락 전환에 영향. 이어 주 후반 중동리스크와 트럼프 연준 압박의 달러 약세에도 급격한 하락에 따른 레벨 부담 속 약보합권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75

1,385.2

1,353.4

1,357.4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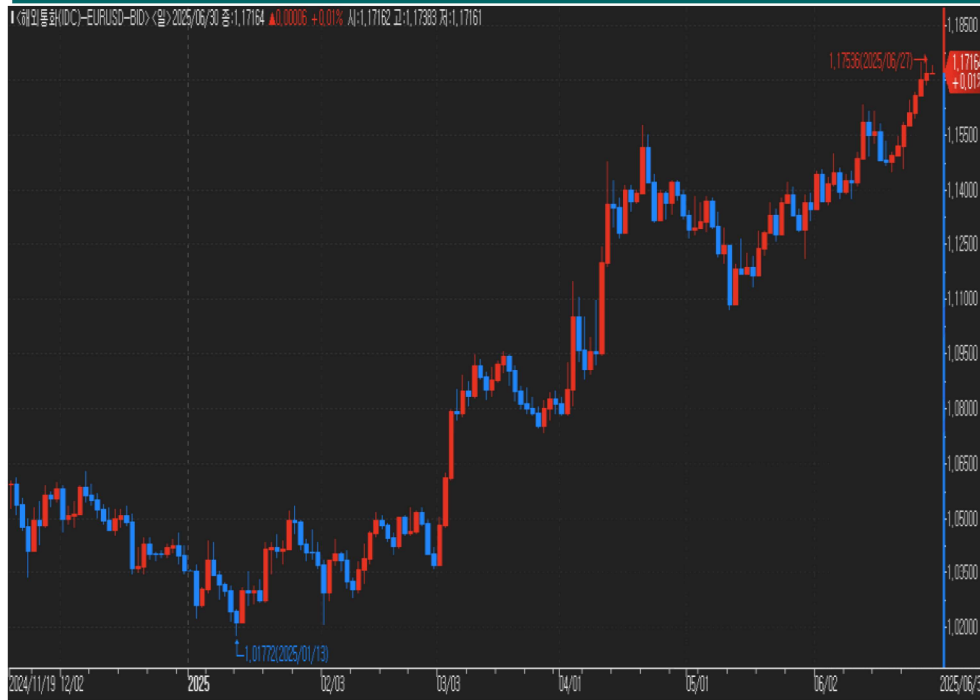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중동리스크 완화 이후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압박 요인 등이 초반 달러 약세에 영향 미치면서 환율은 하방 압력이 다소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몇명 연준 인사들의 통화 완화 언급에도 연준 주요 기조는 여전히 강건한 경제 상황 고려와 향후 관세 영향 고려 우선시 하는 가운데 매파적 기조가 유지되는 측면들이 달러 약세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
- 여기에 주 후반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성 상존하는 점, 또한 타이트한 고용지표 예상 등이 환율 하단 강하게 지지할 듯

예상거래범위

1,350원 ~ 1,370원

유로·엔화 동향 (6/23~6/27)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 당국자들의 엇갈린 통화정책 방향성 언급 속 보먼 부의장의 도비시 스탠스 및 중동 긴장감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반영되며 유로 강세 출발. 이어 미 소비자 지표가 예상 외 부진을 보인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일부가 비둘기적 해석 여지를 남긴 측면이 달러 약세를 견인. 여기에 이란-이스라엘 휴전 소식 등이 반영되며 유로 강세 흐름 지속된 가운데 지난 '21.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시현. 중반 들어, 전일 파월 의장,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많은 경로 가능' 언급이 시장 참가자들에 다소 비둘기적으로 비춰지면서 달러 약세 흐름 속 유럽 방위비 인상에 의한 재정 집행이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 것이란 기대 등으로 유로 강세 지속. 후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 연준 후임자 선임 소식이 달러 약세 지속에 영향 미친 가운데, 주 후반, 유로존 주요 국가 6월 인플레이션이 예상 웃돈 결과에 ECB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등으로 강세 지속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519	1.1754	1.1452	1.1715	0.0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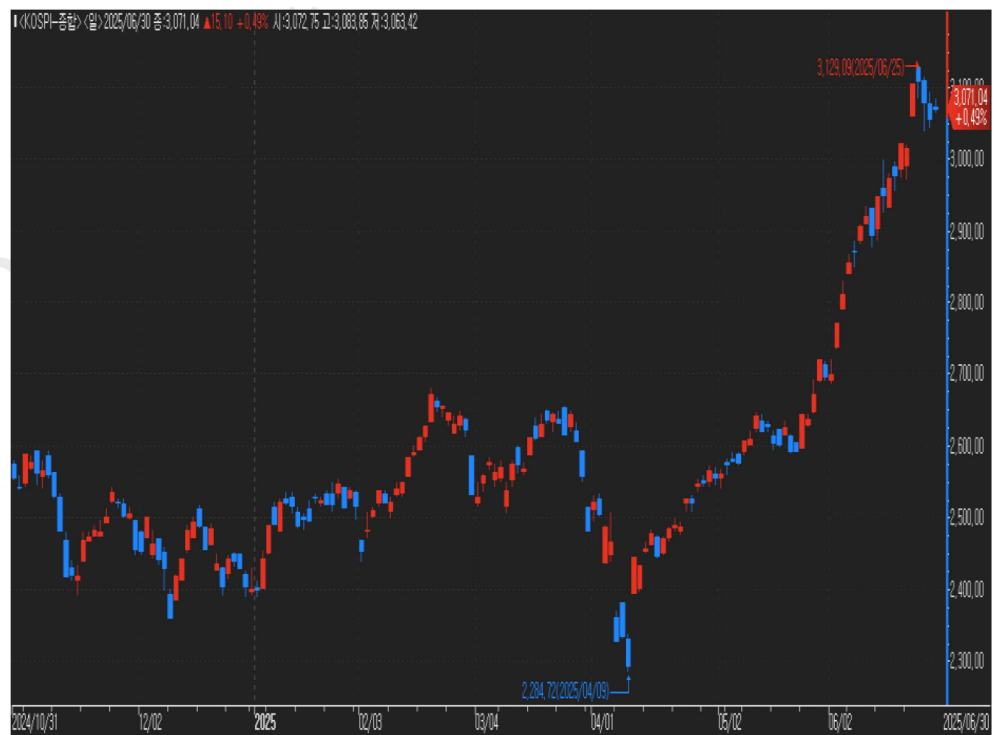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초반, 연준내 강경 매파인 미셸 보먼 부의장 7월 금리인하 지지 언급 및 중동사태가 이란의 미국에 대한 제한적 보복에 그치며 긴장 완화로 전환됨에 따라 달러도 약세 전환 속 엔화 강세 출발. 이어 중동 국가 간 휴전 합의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 큰 폭 하락이 일본 외수 경제에 긍정적일 것 이란 기대감 작용 등으로 엔화 강세 지속된 국면. 중반 들어, 파월의장 언급이 통화완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에 달러 약세 영향 반영하며 엔화 강세 나타냈으나, 그간의 중동 리스크 약재 일단락에 따른 일부 관망세 등으로 약보합 전환. 후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완화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둘기파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가능성 소식에 달러 매도 흐름 강화되는 가운데 엔화 강세 나타난 가운데, 주 후반, 전일 뉴욕증시 호조에 달러 강세 요인 반영 속 미-중간 무역협정 마무리 소식 속,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재료 등으로 엔화 약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1	148.0	143.7	144.6	-0.5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23~6/2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주말 사이 미국의 이란 핵 폭격 소식 이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고려 소식에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했으나, 점차적 대내 외국인 저가 매수세 등으로 상승폭 다소 완화된 국면. 이어 중동 리스크가 트럼프 중재 속 휴전으로 가닥 잡음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락 방향성에 국고채 금리도 동조 되었지만, 한은 매파적 스탠스 확인 이후 하락폭 제한된 국면
- 중반, 미 경제지표(소비자신뢰지수) 부진에 따른 미 금리 하락에 연동 흐름 나타난 이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의 향후 매파적 스탠스 감지됨에 따라 하락폭 축소한 형국. 후반 들어, 연준의 초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 하향 개정안 통과에 미 국채 커브 전반 강세 압력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대내적 대통령 2차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은 적자재정 이슈 등 국채 공급 요인이라 점에서 금리 하단 제한. 하지만, 기관 순매수 등이 금리 하락 추세 유효하게 한 형국 속 주 후반, 반기말 장세 및 7월 국고채 발행계획 영향 혼조에 수급 반영하며 소폭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이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 소식에 투자심리 악화된 양상 속 하락 출발했으나, 개인의 순매수 확대에 3,000선은 회복한 국면. 이어 중동 사태가 트럼프 중재 속 극적 휴전에 이름에 따라 3% 넘게 급등하며 3,100선 상향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전일 코스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확대 속에 소폭 강보합세 유지
- 후반 들어, 미 반도체 기업 호실적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종 선방에도 전일에 이은 외국인, 기관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 따라 크게 하락 전환한 국면 시현 후, 주 후반, 전일 뉴욕증시의 미-중 무역협정 마무리 소식 등에 따른 호조에도 최근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 강화 등으로 이를 연속 하락하며 마감